

결혼과 여성지위 - 고달픈 남편들

여성의 자기 품 주장에 남편들도 감광필광

결혼 이후에도 여성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포기하지 않게 된 요즘, 이런 여성들을 아내로 살아야 하는 남성들도 혼란을 경험한다. 급격한 과도기의 양상을 보이는 결혼문화는 남성들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남자는 결혼과 함께 처자식을 거느리는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맡는 대가로 가정 안에서의 소소한 일에서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면제받았다. 총각시절까지 어머니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던 의식주의 일상노동이 아내에게로 넘어가고 남편은 적어도 가정안에서는 '큰 아들'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집안의 인간관계를 추스리는 일,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일, 집안을 말끔히 정돈하는 일,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일, 거기에 집안재산을 늘려가는 일까지 가정에 관계된 모든 일은 '마누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여자의 일이었다. 남자는 직장일에 종매진해서 성공함으로써 경제적 여유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돼 있었다. 적어도 이 시대의 남자들은 '당신은 왜 출세를 못하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는 있을 수 있어도 '왜 집안일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등지족'으로의 투항적 변신

이런 성별분업이야말로 사나이 대장부가 존재하기 위한 최적의 토양이 됐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하고 성과없는 일들에서 해방됨으로써 남자는 세계를 논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입신양명을 위한 일에 집중하면서 비로소 사나이 대장부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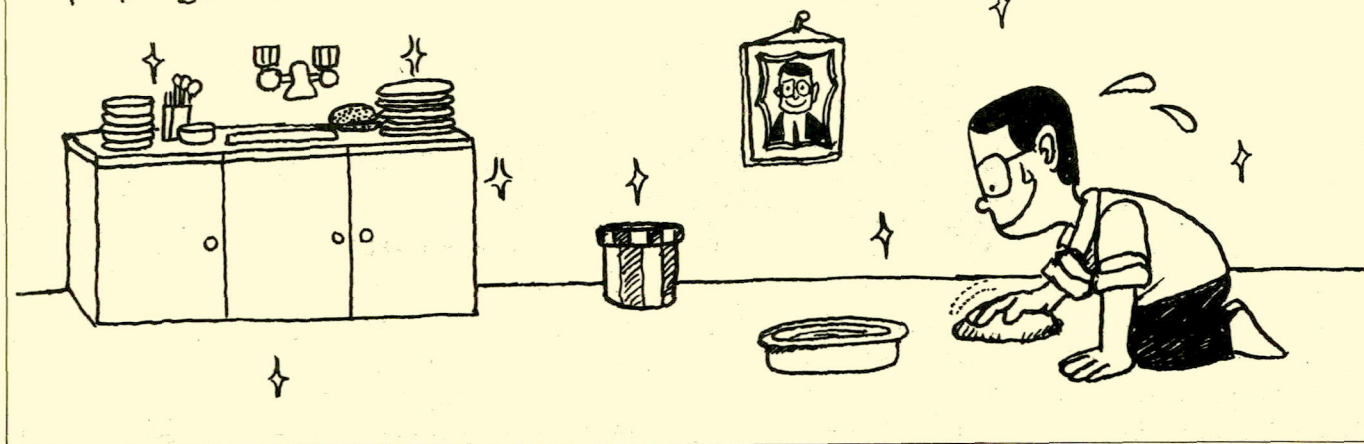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남성들의 이런 호시절에 이미 종말을 고해버렸다. 사나이 대장부들의 천생배필인 마누라들이 자기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급녀의 영역에 속했던 장래와 꿈과 세계를 공유하기 위해 안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자들은 결혼하면 왕좌에 앉게 되는 호시절에 살고 있지 않다. 한때 '부권의 상실'을 통탄하는 것으로 이 시대적 변화에 반동적으로 반응했던 남자들은 이제 그 역행적 항거의 힘마저 잃어버리고 백기를 들고 말았다. 현대 남성들은 사나이 문화를 포기하는 대신 '좋은 아버지가 되자'는 취지의 모임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육아일기'의 필자가 되기 시작했고 회사보다는 가족에 충실한 '등지족'의 일원으로 투항적 변신을 시작한 것이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없이 혼자 산다면.



이런 남자들을 '사내가 오죽 못났으면...'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시대도 지났다. 한두 사람 개인적으로만 그런 생활을 하면 일축해버릴 수 있었지만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세탁기를 돌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아내에게 시간을 주고 설거지를 해보자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해 히트를 쳤다. 대중매체는 이 시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이렇게 가정 깊숙히 들어와 아내의 노동을 나누어주고 부드러운 감성을 표현하는 '사내'의 눈으로 보기에는 '쫄잔하기'를 데 없는 '인간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결혼은 고생길'이라는 말은 이제 여자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남자들도 결혼의 부담을 말해야 하는 행렬의 일원으로 등장했다. 동방유랑 홍보실에 근무하는 장동호 씨(34)는 '남자도 결혼하면 힘들어진다'고 말한다.

남자도 '결혼은 고생길'

"세상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남자에게는 결혼이 부담이 됐습니다. 여자들이 옛날에 아무 소리 않고 하던 일을 안하고 남자가 같이 하기를 요구하고 남자가 따라가지 않을 때는 가정이 조용해질 않습니다. 총각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지내다가 결혼하면 집안일 해야지, 일찍 들어가야지, 우선 몸이 피곤합니다. 총각 때 일주 한번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

게 꼭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하는 친구들은 집이 시끄러워지는 걸 각오해야죠."

여자들도 집안일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하고 맞벌이를 시작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은 그야말로 '사세부득의'한 필수항목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집안일이 여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참여폭이란 그야말로 보조 초년병쯤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거에 '하늘'에 비유됐던 귀한 신분층, 배고파 죽어도 뜻을 더럽힐 수 없었던 관념적인 선비의 후손들, 귀남이의 후예들인 한국의 남편들로서는 참으로 엄청난 변신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분' 필요한 남편과 '생색내기'에 불만인 아내

집안일을 조금씩 나누어하기 시작한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돕기' 위해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믿고 싶어하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도 아직까지 남자 자신들이 자신의 변화를 어색해 한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남자들 주관적으로 엄청나게 '돕고' 있는데도 현대의 아내들은 끊임없이 불평한다. 남자의 가사일은 '돕는'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일에 '사랑' 운운하는 명분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엄살이라고 받아친다.

아내의 기대치와 남자들의 자발적인 변신의 한도가 맞지 않아 생겨나는 갈등 속에는

현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부장으로서의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순종적인 여자를 만났더라면 전혀 하지 않아도 좋을 일, 우리 어머니들은 전혀 시키지 않았던 일, 다른 남자들은 안하는 일을 나만 하고 있다. 손해 보는 기분이다.(남자들의 피해의식 1)"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하기 싫다"

"나는 페미니스트다. 여자를 억압하는 독재자 같은 남자는 되기 싫다. 여자를 많이 이해해서 여자를 많이 도와준다. 말 안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텐데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허용한게 이상을 요구해오면 정말 참을 수가 없다.(남자들의 피해의식 2)"

"내가 아내를 돕는 것은 내가 못났거나 잘난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남편들보다 아내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내 행동을 사랑의 표시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하기 싫다.(남자들의 피해의식 3)"

남자들은 지금 내면 속에서 이런 피해의식과 전쟁 중에 있다.

아내와 4대1정도로 가사일을 분담하고 있다는 권순궁(대학강사) 씨가 집안일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고민을 옮겨보자.

"가사노동이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다. 차라리 직장에 나가는 것이 훨씬 편했다. 나는 애를 보거나 빨래를 하며 늘

일을 책임지는 권 씨는 아직도 아내에게 충고를 듣고 있는 모양이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독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권 씨는 남자의 집안일이 '돕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암호문을 해독한 진도빠른 모범생 중 한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많은 경우 남자들의 피해의식을 배려하는 전략이 오히려

남성들의 고군분투에 박수를

큰 효과를 낼 때가 많다. 주부 이인수(28. 서초구 반포동) 씨는 결혼생활에 불만이 느껴져서 남편에게 항의할 때보다는 자기의 갈등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이렇게 불만을 느끼니 나를 보는 당신도 참 힘들겠다"면서 "당신도 피해자"라고 말을 해주시니 남편이 먼저 "나부터 조금씩 바꿔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자신의 전략이 바뀐 이후로 남편이 진심에서 우러나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며 여자들이 다그치는 방법보다는 남자들의 어려움도 알아주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문제가 더 잘 풀린다고 말한다.

아내가 집안에서 간혀 사는 것은 싫고 남자가 집안일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자가 안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못마땅한 것이 현대 남성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딜레마에 해당한다. 더이상 봉건적인 가부장이 될 수 없는 현대남성들의 고군분투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시선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지혜일 수 있겠다. (김효선 기자)

지금 북한에선 ②

산후탈에 대한 민간요법들

북한의 주부들은 해산후 몸조리를 잘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생애 추리알을 한번에 5알씩 하루 3번 빈속에 3~4주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산후에 발생하는 갖가지 증상들이 호전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 주부들이 산후탈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민간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꿀 한술잔과 소주 한술잔을 한데 섞어 하루 3~4번에 나누어 마신다.

-단란삼 15~20g을 물에 달여 하루에 2~3번 나누어 먹는다(식은땀에 좋다).

-돼지열 말린 것 1g과 천남성가루 10g을 한데 섞어 줄인 꿀에 반죽해 알약으로 만든 후 한번에 2g씩 25~30%의 알콜 50ml에 풀어서 먹는다. 30분전에 아스피린 2알을 먹은 다음 이 약을 먹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내면 더욱 좋다.

-절랑이를 하루 40~50g씩 물에 달여 2~3번에 나누어 먹는다. 가슴이 뛰며 식은 땀이 날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산후에 기침이 나고 숨이 찰 때는 밤 10~15알을 껌질을 벗기지 않은채 2개로 쪼개어 적당량의 물을 붓고 달여서 한꺼번에 먹는다.